"올 여름엔 뭐 입고 놀지?"

이름부터 시원한 K2 '오싹 폴로 티셔츠' 네파는 아웃도어 서머룩 컬렉션 구성 컬럼비아 '팩 어택 컬렉션' 수납 최적화

슬슬 더워진다. 여름 준비를 할 때가 됐다.

도심에 '시티룩'이 있다면 등산, 캠핑, 피크닉 등 아 웃도어 활동에서는 '아웃도어룩'이 있다. 등산바지에 현란한 컬러의 바람막이 재킷을 걸치는 '아재룩'의 시 대는 막을 내린 지 오래. 진짜 멋쟁이는 아웃도어 환경 에서 기능과 패션을 둘 다 놓치지 않는다.

올 여름 '아웃도어 서머룩'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좋 을까. 옷은 시원하면서도 멋이 있어야 하고, 소품은 기 능성이 뛰어나면서도 휴대가 편하고. 패션 아이템으로 도 손색이 없어야 한다.

K2의 '오싹 바이오 폴로 티셔츠'는 이름부터 시원하 다. 강력해진 냉감효과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신개 념 냉감 폴로티셔츠다. 얇고 시원한 냉감 트리코트 소 재를 적용해 땀이 나도 몸에 들어붙지 않는다. 목 카라 안감 부분에도 냉감 폴리에틸렌 소재를 사용했다. 목 덜미가 시원해진다.

남성용은 멜란지그레이, 다크네이비, 화이트, 블랙, 애쉬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여성용은 핑크베이지, 다크네이비, 체리핑크, 화이트 4가지 색상이 있다.

네파는 여름 아웃도어 활동에 입기 좋은 제품들을 모아 아예 컬렉션을 구성했다. 'C-TR 3.0 핫 썸머 컬렉 션'은 캠핑, 트레킹, 카약 등 여름 시즌에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에 특화됐다. '요즘 아웃도어'를 표방한

메인제품인 'C-TR 씨타 라운드 티셔츠'는 색감이 독특해 이 옷 하나만 걸쳐도 스타일이 '확' 살아난다. 신축성 소재를 사용해 편안하며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여름철 아웃도어 활동에 딱이다.

'C-TR 웨이브 숏 팬츠'는 넉넉한 사이즈에 여유있 는 핏으로 나와 물놀이에도 적합한 반바지 제품. 허리 전체에 밴드를 사용해 편하게 입을 수 있다. 항균가공 처리된 주머니감을 사용했다.

●가방과 신발도 아웃도어룩 패션 아이템

'팩 어택(Pack Attack) 컬렉션'은 패커블 기능으로

수납에 최적화된 컬럼비아의 컬렉션이다. 컬럼비아만 의 클래식한 아이덴티티를 현대적인 감각을 통해 재해 석한 라인이다.

대표제품인 CDC 스포츠 윈드브레이커 쇼츠와 팬츠 는 컬럼비아 로고 프린트와 패치 디테일을 더해 브랜 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디자인이 눈에 들어온다. 매쉬 포켓에 패커블 기능을 적용해 실용성을 강화하고, 신 축성이 우수한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 생활방수, 얼룩방지 기능의 옴니쉴드 기술을 적용했다.

아이더의 '아이스테크 슬링백'은 독특하게도 크라우 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첫 공개한 제품이다. 5월 26일 시작한 펀딩은 오픈 일주일 만에 목표액의 3000%를 달성했다.

4중 구조의 빈틈없는 단열설계로 음료, 간식 등을 야외에서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이다. 두 손 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슬링백 디자인으로 야외 활동에 안성맞춤. 군더더기 없는 베이직한 디자인이라 어떤 룩에나 매치하기 좋다.

옷과 가방을 챙겼으면 이제 신발을 신고 나설 차례 다. 트렉스타의 '포레스트'는 페트병과 러버를 재활용 한 친환경 소재 신발이다. 심플한 디자인과 컬러로 활 용의 폭이 넓은 라이프스타일의 운동화다. 남성용은 블랙, 네이비, 여성용은 화이트 3종으로 출시됐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K2 '오싹 바이오 폴로티셔츠'를 입은 전속모델 박서준(큰 사진). 컬럼비아 패커블 제품(작은사진 왼쪽)과 아이더의 아이스테크 슬링백.

한국관광공사 "환경 보호 위한 '불편한 여행' 국내서도 실천해요"



친환경 여행법 대국민 챌린지도 진행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 속가능한 친환경 여행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진행하는 '불편한 여행법'(사진)은 환경을 위해 평소 여행 때 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개 선하자는 캠페인이다. 10월까지 진행하는 '불편한 여행법'은 환경을 위해 여행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여행기념품 포장 줄이기, 등 다양한 형태로 게재하면 된다.

친환경 제품 이용 등의 작은 실천을 강조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려는 운동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불편한여행법 챌린 지' 및 친환경 여행 후기 콘텐츠 제작 및 홍 보 등을 진행한다.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챌린지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불편한여행 법, #대한민국구석구석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이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예정인 친환경 여행방법을 사진·영상·일러스트

9월에 이벤트 누리집 투표와 전문가 심 사를 통해 '기발한 여행자상' 20명, '더 착 한 여행자상' 50명을 선정하고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가방과 친환경 여행키트 등을 증 정하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보건 교사 안은영'의 정세랑 작가, '홉수, 까미 노'의 저자이자 클린 하이커(산에서 쓰레기 를 줍는 환경활동가)인 김강은 작가 등 인 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챌린지 에 참여한다. 김재범기자 oldfield@donga.com

6월 4일 (금) 음력: 4월 2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행운색:청색 길방:동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

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

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

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

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

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

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

우고 착수하라.



상대방과 의견·방향을 달리하

는 운기이다. 이럴 때 끝까지 자

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

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

다. 지금의 기운은 쇠하여 있

다. 헛된 고집을 버리고 친애와

협조에 마음을 쓸 일이다. 새로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

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

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

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

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

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신중하

고 묻기를 거듭해야 한다.

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흰색 용 길방:서



행운색:청색 뱀 길방:동

색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 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 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 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 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 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 을 삼가 하라.

행운색:흰색

길방:서



가 들어온다.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흰색 길방:서









길방:서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거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 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

레저

*스로*츠등아 2021년 6월 4일 금요일 **15**

오션월드, 인기구역 메가슬라이드존 오픈



홍천 워터파크 오션월 드가 메가슬라이드존을 오픈하며 야외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메가슬 라이드존은 더블스핀, 더블토네이도(사진), 슈

퍼S라이드, 카이로레이싱 등 튜브와 매트를 타고 낙하 하는 대형 슬라이드 시설이 모여 있어 고객이 많이 찾는 인기 구역이다. 야외 확대 개장을 기념해 군인, 경찰, 소 방공무원은 6월 말까지 본인 1만원, 동반인은 최대 3인 까지 2만원에 워터파크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블랙야크. 2021 대한민국상품대상 수상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회장 강태선)가 5월 29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1 대한민 국상품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 상품 부문 대상을 수상 했다.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상품 대상'은 매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기업 및 지자체를 선정해 우수한 상품을 시상하고 시상 상품의 개발 사례와 마케팅 사례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한다. 블랙야크는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 섬유에 아웃도어 기술력을 더 한 '플러스틱 컬렉션'을 출시하며 친환경 상품의 생산이 지 속가능한소비까지 이어지도록 한점을 인정받았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바다사자의 콜센타' 운영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바다사자에 대한 생태설 명회를 들을 수 있는 '바 다사자의 콜센타'(사진) 를 2일부터 시작했다. 관 람객이 바다수조 앞에 설

치된 뮤직박스에서 토크쇼 형태의 생태설명회를 들을 수 있다. 바다사자의 특징 등 생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토크쇼를 뮤직박스 안에서 들으며 아쿠아리스트가 바다 사자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평일 하루 1회 (오후 3시), 주말 하루 2회(오전 11시30분, 오후 3시) 롯데 월드 아쿠아리움 바다사자 수조 앞에서 진행된다.

파라다이스시티 얼리 썸머 패키지 출시



인천 영종도의 복합리조트 파라 다이스시티는 여름휴가를 미리 즐길 수 있는 얼리 썸머 패키지 2종을 새로 출시했다. 6월 한 달 간 이용 가능한 패키지로 영종도 에서 여름휴가의 낭만을 미리 느 낄 수 있도록 마련했다. '파라다 이스시티 X 쏘카' 패키지는 체크

인하는 날부터 사용 가능한 48시간 쏘카 이용권을 제공 한다. 흑백사진 전문 셀프 스튜디오인 '흑백사장(黑白寫 場)'과 협업한 '낙원시 셀프 사진관' 패키지(사진) 이용 고객에게는 밀착인화 사진 2장과 촬영 모습이 녹화된 타임랩스 영상, 원본 파일 등을 제공한다.

오늘의 날	μ				4일(금)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	16 23	\	14 20	\	16 25
강릉	0/0	대전	20/0	전주	20/0
-	18 27	$\bigcirc \Rightarrow$	16 26	\triangle	16 26
광주	30/0	대구	60/0	부산	60/0
⇔	17 26	⇔ *	18 27	₩	19 24
창원	60/0	제주	60/10	지역	강수 확률 O전/O호)
⇔ *	18 26	₩	18 24	낙씨	오전/오후) 최저 ^최 고기온°C

人至为	经交易 The sportsdonga								
발행인·편집'	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	호 사업총골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산업경제부장	안도영 양형모	스포츠부장 사진부장	정재우 고종철	엔터테인 인쇄		이정연 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	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	-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	0 제보‥	투고 02-361	-1616 s	ol@donga	.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

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

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

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

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

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

혁 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

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

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

화불량을 주의하라.

소

행운색:흰색 길방:서

호랑이

행운색:적색 길방:남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 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 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 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 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 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 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

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 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 고 신중해야 한다. 개 행운색:흰색

5 돼지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 의 그늘이 지므로 겉은 화려하 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걱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 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 사 초지일관의 자세로 밀고 나

망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친다. 계획은 곧 이 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 리며 심신을 안정시킴이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 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 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벌여놓은 일들은 마 무리 짓고 싶어진다.